

西浦評論研究

金周漢

<內容>

- | | |
|---------|-----------|
| 1. 귀리말 | 2) 한글 文學評 |
| 2. 詩學淵源 | 3) 小說評 |
| 3. 詩 論 | 4) 評 語 |
| 4. 詩 評 | 5) 痘病論 |
| 1) 漢詩文評 | 6. 냇음발 |

本稿는 韓國文學評論史 構成可能성을 探索하기 爲한 試圖로 쓰여 진다.

이에 對한 論文들이 아주 없지는 않으나 散發의 이라 할 만하니 그 大綱은 참고란에서 言及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그 한 예를 陶南先生님에게서 찾을 것 같으면 “評論文學의 大文字”¹²라는 表現으로 그 짐작이 가능하리라 믿는다. 여기서는 우선 西浦의 宗教觀과 學問之道, 言語, 文學에 對한 관심, 文學의 國籍問題, 平民意識과 天文學에의 흥미를 머리에서 다루고 본론에서는 西浦 詩學의 淵源과 詩論, 詩와 小說에 對한 評과 評語, 特히 正音으로 記錄된 우리文學에 어느 정도의 관심을 갖고 있나를 離마하고 끝으로當時 文壇의 痘弊에 관한 指摘을 순서로 하여 論述할까 한다. 먼저 西浦의 宗教觀을 살피기로 한다. 佛書에는 석가모니의 말이 적혀 있는데 석가모니가 면도한 뒤에 正法과 象法이 共히 一千年, 宗法이 一萬年이 내려 갈 것이라고 했는데, 西浦가 불때 宋以後에 佛法이 처음으로 衰해서 禪이 儒로 变했으니 이는 天地와 더불어 終始를 같이 하는 것을 보면 佛 또한 靈怪한 것이 아니겠는가? 라고 하여 佛教를 은연중 찬미하고 있으며 <下1> 從來의 箕子設教說을 의문시 내지 부인하면서 所謂 ‘東國文字之教’를 佛教의 功도 크다고 역설한다. 즉,

“我東雖稱殷師所封之邦，降至秦漢遺風掃地，國俗之愚悍，少無異於鮮卑韃靼，及東晉末浮河道等東來，始知有文字之教，新羅之盛，薛弘儒以釋門之譚曠首闡文風，崔

1) 趙潤濟, 韓國文學史, 評論의 蟻動條

文昌以次室之維摩大鳴中華，至於羅未圓隱諸公，因之而反正於孔孟，論其擊蒙納牖之功則，佛氏非細，蓋亦以言語氣味有相貫通而然也，至今東人，稱師爲師僧，未有佛教時元不識有此等事也<下·4>

위에서는 ‘擊蒙納牖之功’을 論하면 佛氏가 微細하지 않은데 그 까닭은 바로 ‘言語氣味가 서로 貫通함이 있어서 그런것이 아닌가’라고 했고 반론에 ‘周公·孔子의 書가 東晉으로는 三韓을 넘어서지 못하고, 南으로 交趾를 넘어서지 못하니 데개 言語文字의 理가 서로 通하지 못해서 그런게 아닌가?’라고 하였다. 그러면 이 言語言文字의 理란 어떤것인가 하면 一種 比較言語言學의 인 考察을 하고 있으니, 華語와 西笠語와 西洋萬國圖 表記와 蒙書, 清書와 우리와의 ‘該文’의 語勢와 書體等에 對해 검토를 하고 있으니, 西笠語와 우리 말의 語勢는 같아서 서로 빨리 漸染할 수 있으나 華語는 비록 ‘萬國에 獨尊’하는 것이나 우리말과 어세를 달리하기 때문에 佛法은 沙界에 行하고 周·孔의 書는 三韓·交趾에만 전파가 된다고 하여 言語言面에 깊은 고구가 엿보인다. <下 4>

이에서 볼 때 우리의 ‘該文’은 西笠語에서 八思巴의 蒙書를 거쳐서 만들 어진 영향관계를 피력하고 있는데, 이는 傅齊叢話와 같은 이야기가 된다.²⁾ 이 밖에도 <下·5>에서는 正言에 대한 見解가 披瀝되고 있으며, 또한 儒佛道와 耶蘇教에 對해서도 그 傳播 漸染되는 관계를 <下·24>에서는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佛法之行中國，世莫詳其始，……西洋國人利瑪竇，萬曆中泛海到東越，自鳴鍾銀鏡人皆寶之，而若其所謂天主教者，惟李之藻徐廣啓數人好之，及至崇禎皇帝湯若望等，修正曆法，而其教頗得行於中國，想佛教之始，亦應如此，天下事固未嘗無牽也*”

라 되어 있고, 또當時만 해도 儒敎의 전성하던 時期라서, 儒佛의 관계를 唐나라 士大夫를 빌어 所謂 ‘儒主佛助’, ‘儒經佛緯’를 補劑·清涼散에 비유하고, 自己의 好佛을 은근히 변명하고 있으며 <下·26> 地球說에도 言及한 것으로 봐서 西洋曆法에도 一家見을 갖고 있었던 듯하니 <下·56>

이와 같은 地球說은 <下·57>에도 言及이되고 있다. 또 西浦는 文學의 國籍問題를 들고 나오니 곧 朱子가 傳燈錄에 나오는 西天祖師偈에 韻脚이 있다는 이유로 華人이 賣作한 것이라 하고 스스로 正贗을 얻었다 하여 複大年, 蘇子由의 깨닫지 못함을 지적했는데 그렇지 않다고 반론을 전개하고 있

2) 成倪, 傅齊叢話, 大洋書籍 南晚星譯.

일이 증거를 提示한다. 文學의 국적을 韻脚의 有無로 斷案을 내려서는 안된다고 했고 또 華語 아닌 外國의 言語가 다만 韵이 없을 뿐만 아니라 五·七言의 差別도 없는 것이고 오직 譯者의 所爲에 달린 것이라 하고 經傳의 譯은 오직 本旨를 잃지 않는 것이지 語의 長短과 頗簡에는 관계가 없는 것인데 하물며 有韻·無韻에서 일까요나? 라 했으며, 우리의 街巷唱曲聲을 듣고 華使가 물었을 때 館伴이 倉卒間에 五言詩로 읊기느라 韵은 맞지 않으나 本旨는 잃지 않았으니, 어찌 韵이 없는 것은 高麗風謠라 하고 館伴이 漢字로 읊긴 有韻의 것을 華人賣作이라 할 수 있겠는가? 朱子가 外國의 語勢를 모르고 이 같은 말을 했으니 괴이할 바 없다 하여 朱子의 無識을 정면 공격하고 있으니 <上·101>, 西浦는 高麗의 風謠를 듣고 나올 정도로 우리의 歌謠에 對한 관심이 커있고 따라서 民衆에 對한 意識의 覺醒이 徹底했던 것이다. 文成公의 十萬養兵說이 先見의 明은 있으나, 나라에 刻核의 政事が 없고 民心이 한 곳으로 모여 있지 않으면 養兵의 害가 더 크다고 했다. 단 일에 民心이 離反되 있다면, 우리나라의 援軍을 어떻게 饋餉했겠으며, 嶺南,湖南의 義旅들은 무엇으로 統合했겠는가? 라고 하여 民心의 所在와 總力團結을 강조하여, 國民의 立場과 民衆의 見에서 諭理를 展開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이런 民衆意識은 後述할 한글文學作品評에서 다시 언급이 될 터이고 마리 말 부분의 마지막으로는 西浦의 學問觀을 살피고 本論으로 넘어 가겠다. 한마디로 西浦의 學問의 態度는 ‘明義理’ 그것이라 할 수 있으니, ‘學問之道無他, 明卞義理而趨捨之而’ <上·92> 라 하여 義理를 眇혀서 趨捨(進退)할 따름이라 했고, <上·63>에서는 人間 最高의 價値體系요 理念으로 높여 人間修養 最高의 原理로 취급하고서 朱子의 中庸序의 ‘人心道心’과 佛教의 ‘以心觀心’의 公式에 對入시키고 있으니³⁾

“中庸序人心聽命於道心一語最爲難解……今若解之曰必使義理之心，當爲一身之主，而其有時發於形氣者，亦莫不聽命於義理云，則頗似分曉，未知文公之意，果如是否，大抵人之一身之內，有若有二心，時時便立言取人易曉，是亦一道，而此乃釋氏以心觀心之說，固已見示於朱子矣，以心觀心者，以其心自檢其心也，人心聽命於道心者，以其心受檢於其心也，未見其有異同也”

라 했으며 <上·95>에는 “蓋唐之立國義理，不甚分明，而國體頗尊重，宋則反是……”이라 했으며 <下·77>에 「朱子語類 第五十二卷」 ‘游然之氣論’

3) 摘稿 韓谷評論研究 語文學 33輯.

을 評하는 대목에도 있으며 <下·89>에서는 上古民은 淳朴하여 義理에 따라 思考하고 行爲했으나 後來에 일이 있으면 義理에 따라 行하고 그리고도 通曉하지 못한 끗이 있을 때 점을 쳐 본다고 했다. 이에서 西浦가 學問之道에 義理를 얼마나 重要視했나를 규지할 수 있겠다.

2. 詩學의 源流

西浦는 丁丑 廢變에 父親이 江華島에서 殉節하고 遺腹子로 태어나서, 教育을 廉莫 슬하에서 받았으니 그 경위를 간단히 살펴 보면, 居喪에도 궁핍한 빚을 보이지 않고 때로는 粟으로 册을 바꾸고, 또 다급할 때는 짜던 베를 잘라서 册을 購入해서 공부하게 하고 또 손수 베껴서 가르치기도 했으니 西浦의 각고한 사연을 짐작하겠고, 더욱 커서는 그의 兄 瑞石 金 萬基에게서 영향을 받았으니,

“……萬重은 童年으로부터 先生(先兄)에게서 受學하여, 가만히, 先生이 論事文에는 朱文公, 眞西山을 좋아하고 叙事에는 班史를 좋아하며 늦게는 歐曾의 文을 지극히 좋아했고, 本朝文人으로는 張谿谷을 가장 좋아함을 봤고 詩는 文選을 배워 少時에 謝康樂을 模擬하여 간간 絶類한 것이 있었고, 近體는 처음에는 江西詩派를 주로 배웠으나 門路가 즐음을 혐오하여 王元美, 胡元瑞의 說을 아울러 취했고 늦게 더욱 放翁의 詩를 좋아하였기에 前後의 詩格이 執一함이 없이 원만했음을 보았다. 平居에도 손에서 册을 놓는 법이 없었으나, 오직 그렇게 대단하게 作詩함을 즐기지는 않았으며, 말씀하시기를 「古之詩人들이 비록 大家라고 해도 그의 詩가 千首를 넘어서지 못하는데 今人은 平仄만 겨우 分辨한 줄 알면 七言律이 累千首에 이르나 그들의 材料와 氣格이 이미 十首 안에서 다해버리니 어찌 많은 것만 좋아하겠는가? 大抵 才具가 작은 사람은 전설로 多作할 수 없고 較大한 사람이라도 많이 지어도 조금 가려서 발표한다」하였고 또 말씀하시기를, 「詩란 五言 뒤에 七言이 생겼고, 古詩가 있은 뒤에 近體가 생겼다. 그래서 古人們이 이에 段로 長短이 없을 수 없는데 今人은 오로지 七律만을 익히고 있다. 今世의 詩가 물等 率傷淺促해서 불만한 것이 있으나 이 어찌 把筆하는 순간에 벌써 本源이 어두운 까닭이 아니겠는가 무릇 作品이 비록 純화하고 해도 法을 取해 지으면 衍且함이 없다.」 하시고 때 양 朱文公의 選體를 일러 段로 이것이야말로 詩家의正宗으로서 詩文을 論함이 學問을 論함과 같으니 學者가 이로 말미암아 혼음이 있으면 門路가 不正함을 근심할 필요가 없다고 하셨음을 볼때 故實을 引用하고, 文字의 出處가 的確·穩固하여 少差도 없으셨다. 늘 말씀하시기를 「今인이 여기에 致意를 하지 않고 오로지 應猝을 能事로 삼으니 이는 곧 自欺하는 것이라 다만 文字의 疏病만이 아니니 경계하지 않으면 않된다」고 하셨으니 대체 이런 말씀들은 先生께서 가르쳐 주십이 이 같으셨

다…….”⁴⁾

라고 된 글에서 西浦의 詩學淵源을 대강 알 수 있으리라 믿는다. 어디까지나 詩의 本源과 正宗을 본말아야지 猶應과 多作을 能事로 알아서는 안된다고 한 가르침이, 西浦에게 큰 영향을 주었으며 이런 태도가 評論하는 과정에 많이 나타나고 있으니 후술하겠다.

3. 詩 論

i) 詩論은 西浦의 詩觀을 말한다고 할 수 있으나, 앞 項 詩學淵源條에서 言及된 것으로서도 그 대개를 짐작할 수 있으리라 믿으며, 여기서는 西浦가 撰集한 詩集인 《宋詩抄》의 序文과 ‘澤齋遺睡序’에서 그概畧을 적어 보기로 하고 漫筆에서도 補足을 해 본다.

먼저 ‘澤齋遺睡’의 경우를 보면, 所謂 程式詩文은 짓지 않고 떠로 古樂府나 文選을 읽었으며, 더욱 朱子의 詩에 관한 論文을 읽고는 더욱 자기의 詩論에 對해 自信을 가지게 되었으며 科舉場屋文의 폐습을 續正하려고 노력까지 했는 것이니 西浦는 朱子의 文學觀을 배운 伯兄 瑞石에게서 다시 詩文을 습득한지라 朱子의 學詩門路를 固守하려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으며,自己는 近體보단 古詩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니 뒤에 言及된 ‘學古派’의 칭송이나 ‘詩道百六之窮’이란 評에서도 傍證이 될 수 있는 것이고, 詩의 正宗인 唐詩에로의 反正을 爲하여 먼저 宋詩를 抄選했으니 여기서도 漢魏之詩境을 憧憬하는 西浦의 意圖를 엿볼 수 있는 것이니當時 너무나 詩의 根源을 모르고 科舉場屋의 套語에 빠진 末弊를 續俗하려는 팬점이 여실히 알겠고 더욱 詩篇數가 많음이 결코 좋지 않다는 것을 강조하고, 宋詩가 唐詩보단 못하다는 事實을 인정하면서 遷源하는 태도를 견자하도록 忠告하고 있다.

한마디로 西浦는 朱子詩觀을 옹호하고 있다 할 수 있겠으며, <下·97>의 “以此觀之，朱文公不用詩序之高也”라는 西浦의 見解가 더십 몇반침한다고 보겠다. 또 <上·47>에는 “文公詩傳，剗去諸儒附會，直後本來顏面，可謂一洗萬古”라고 하여 朱子의 詩集傳을 높이 사고 있다. 그리고 <上46>에는 詩經闕唯二三章이 “獨得性情之王，而非他國風之所及”이라 하여 孔子의 “樂而不淫，哀而不傷”에 共鳴하고 있다. 關雎章과 程式詩와를 比較하면서

“間嘗疑關雎二三章，當作代述君子之意，有所割記矣，更思之，若作君子之意，則

4) 西浦集, 先伯氏瑞石先生跋.

語板而意淺 頗似今世程式詩，不如作宮中之人之意之爲得體也……”

이라 하여 ‘君子之意’를 代述하면 ‘語板而意淺’ 하지만 ‘宮中之人’의 절실한意思를 읊은 것보단 못하다고 하여 代作의 板淺함을 當時 程式詩에다 빗대고 있고 <下·101>에는 “詩人於古人之詩，所尚各不同，亦可見其才識”이라 하여，古人の 詩를 봄에 좋아하는 것이 서로 다르고 그런 것으로 볼 때 그런 詩人們의 才識을 엿볼수 있다 했고, <下·118>에는 自古로 評詩者라고 반드시 詩에 能하지도 않으며 能詩者라고 하여 能評이 될 수 없다고 했다. 이상 西浦의 詩論에 관해 개략을 살렸으니 다음은 評으로 순서를 옮기기로 한다.

4. 詩 評

1) 漢詩文評

① 新羅 高麗時代

新羅 真德女王의 織錦頌德詩 全篇이 典雅하여 褒嗇한 氣分이 없다. 그때의 三韓의 文字로 볼 때 모르긴 해도 이같이 걸작이 될 순 없을 듯한데, 너무 홀륭하니 華人에게 돈을 주고 산 것이다? 아니면 徐賢妃의 流亞인가?”라고 하여, 白雲居士: 李奎報가 “其詩高古雄渾，比始唐諸作不相上下”⁵⁾라고 한 評보다는 어찌 보면 酷評이요 또 어찌 보면 충렬한 자가비판이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런 評을 하고 있는 것이다 <下·119> 또 鄭司諫의 南浦絕句를 海東의 渭城三疊이라고 極讚하고 있으며, 또 다른 詩를 例로 들고 “자못 前輩의 風流가 있어 同時 諸人們은 따라 올 사람이 드물었다고 칭찬한다.

<下·120>

李奎報가 梅聖俞를 惡評한 원인을⁶⁾ 西浦는, 白雲이 대개 見深清省한 것이 자기의 飽滿豪宕한 맛으로 正히相反하기 때문이고, 東坡가 懒어한 徐凝의 瀑布詩를 白雲은 新意가 雅俗에 구애되지 않기에 좋다고 했으나 東坡로 하여금 文順公의 詩를 評하라고 하면 惡詩라고 할 것이 뻔하다고 할 것이라했고 柳夢寅이 歐陽文簡齋詩를 毀謗한 것은 白雲보다 더욱 甚한 데가 있다고 하여 ‘詩人所尚各不同’이란 西浦自身의 所論을 뒷바침하고 있다. <下·102>

다음 어떤 사람이 牧隱을 東坡에게 비유하는데 樂陽村이 말하기를 “자네 돌아 가서 東坡의 赤壁賦와 牧隱의 觀魚臺賦를 읽으면 스스로 알 수 있네”

5) 白雲小說.

6) 李奎報의 「論詩說」이란 글에 있음. “여기서 白雲은 나중에 梅詩를 알아야 詩를 아는 사람이라고 극찬했음.

라고 했다. 然고 徐四佳는 李文順과 收隱의 詩를 近世 學者들이 전심하고 唐宋을 안배우려 하니 이런 폐단을 어떻게 구제하겠는가? 하고 東人詩話에서 개탄을 했으니 이 말은 참으로 훌륭하다고 하여 徐四佳의 見解를 찬성한다. <下·98>

② 李朝時代

新羅, 高麗時代보다는 李朝時代의 評이 암도적으로 多數를 차지하고 있고 또 여기서 西浦는 評을 함에 있어, 佛教의 理論을 많이 利用하고 있음을 쉬간파할 수 있게 된다. 먼저 李朝時代 詩體의 變遷史를 소개하기로 한다. 본 조의 詩體가 四五變뿐이 아니라고前提하고 國初에는 東坡만을 순전히 배우다가 宣靖時에는 容齋가 大成했다는 칭호를 들었고, 다음 翠軒이 三百年間의 한 사람이란 評을 들었고, 또 한번 면하면 潤陰, 蘇齋, 芝川이 腳足했으며 또 變하여 唐에로 反正한 것은 崔孤竹, 白玉峯, 李蓀谷이 순수하나 崔, 白은 晚唐의 울타리나 들여다 봤지 盛唐까지 가보질 못했다 하고 權汝章, 李東岳, 澤堂이 있고 그 뒤 末流에 와서는 唐宋遺風이 자취를 감췄다고 하여 詩道가 百六之窮에 도달했다고 學明一派가 月汀과 玄軒에서 비롯하나 대단한 存在가 못된다고 했다. <下·100>

다음 古學에 뜻을 둔 사람에 對한 評을 들어 보면,

“東方 詩人中에서 古學에 뜻을 둔 분은 成虛白, 中象村, 鄭東溟들인데 虛白은 所學이 形貞 사이에 있어 譬喻하건데 噴蕪하여 아름다운 燥地에 다다르지 못한 듯하나當時에는 極히 깊이가 있었고 象村은 배움의 발걸음을 嘉·隆諸公 사이에 둘여 놓아서 用意함이 廣大誠密하지 않음이 없으나 다만 본래 才具와 韵調가 그렇게는 相合하지 않았고, 東溟은 蹤躅한 기상을 發揚했으나, 懇惻優游한 義가 과과한 때문에 한가지는 얻었으나 둘은 얻지 못했으니 歌行에는 의당하지만 五言에는 마땅하지 못하나 東方 古調는 이 한사람뿐이다”<下·108>

라고 하였음을 볼 때 成虛白 같은 이는 「風驕軌範」을 抄選하여 學古詩의 바탕을 일으켰음⁷⁾을 볼 때 西浦의 이 見解는妥當하다 하겠고 또 漢魏晉의 賀古한 詩를 좋아하는 西浦로서는 得意의 一聲이라 할수가 있겠으며 더욱 이런 古風의 진작을 강조하다 보니 李澤堂의 「詩文軌範」에 對하여 날카로운 批判을 더 보태고 있다. 곧

“李澤堂이 詩文軌範을 치어 子孫에게 남겼는데, 모두 自己가 允蹈한 것을 主로

7) 抨稿 謙齋評論小敍 : 語文學 35輯.

했기에 더욱 그 말의 有味함을 짜닫게 된다. 그러나 이런 절을 함부로 이렇게 斷定할 수가 없으니 東坡가 南安學記를 쓰고 말하기를 辨은 자라 칼 수 있으니 鄭子產 程度라도 足하겠노라고 했었는데 朱文公이 漢奸하기를 어찌하여 云萬臣 오랜 세월 속에 辨과 칼을 사용 하나 없고 다만 子產 정도나 뵈리라고 결정하는가? 라고 한 말은 澤公이 자주 胡氏의 詩藏를 일컬고서 後學을 譴하니 그의 의도를 가히 불만하다 하겠다. 그렇지 않다면 夫子 어찌 구자하게 名을 高大하게 하려 했겠는가?"

<下·109>

에서 目的地와 目標點을 아주 높게 잡으라는 것으로 西浦의 뜻을 풀어 할 수 있겠고, 詩體에 따라서 각 詩人마다 特長이 不同함을 들어 人物論評하고 있으니, 끝어와 보면,

"蘇齋가 스스로 말하기를 七律은 潤音만 못하지만 五律에 더 낫다고 했는데 이 말이 매우 公平하다.

近代에 東溟이 東岳에게 있어서 亦然하다. 石洲가 雨人의 長點을 아울렸으나 斤兩이 역시 조금 부족한 듯하다. 南士華는 翠軒의 詩가 李朝 제일이라 하고 許筠은 容齋가 第一이라고 한다. 近來에 洲·岳·溟三家가 서로 이어 일어나니 談藝者들이 각각 主張하는 바가 있지만 石洲를 右袒하는 사람이 가장 많다."<下·104>

라고 난의 말을 引用하여 놓고 다음 自己의 評을 加하고 있다. 가히 결의하고 또 신중하다 할 수 있겠다.

"틈틈이 李朝 諸公의 詩를 열립하다가 窓外이 借鑑되어 밀하기를 五言絕로서는 李 儒谷의 「桐花夜烟落」이 第一이고, 七言絕은 東溟의 「章華高出白雲間」이 제일이요, 五言律은 世廟의 「崇西笠」이 第一이고, 七言律 傑作은 매우 많아 取捨하기가 더욱 어려우나 마땅히 黃芝川의 「清平山色表關東」과, 檻石洲의 「江上鳴鶴闕角聲」과 李東岳의 「崔顥題詩黃鶴樓」數 詩中에서 求해야 할 것이다.<下·105>

또 '慧性과 定力'을 가지고 評을 내리고 있는例를 들어 보자.

"近代의 名家로는 오직 李澤堂·權石洲의 詩가 各體가 모두 훌륭하고 東溟은 歌行 및 五律과 七絕이 最高고 七律은 그 다음이다. 그러나 오직 選體의 경쟁이 안 된다. 陽陵君許橘의 謂水色五言詩가 清峻·古雅하여 唐體를 염어 一時 操觚者가 故手를 찾지 못했고 곁들여 洲是은 대개 中韻에 何季가 蘇門에 있는 것과 같으나 지금까지 詩名이 그렇듯 赫奕하지 못함은 世人이 오로지 七律詩만을 익히기 때문이다. 훗로 그의 宗人인 許筠이 대단히 밀여 올리는데 珩의 詩는 慧性은 있으나 定力이 不足하기에 唐宋元明의 格調가 섞여 나와서, 東岳, 石洲가 詩道에 깊이 들어

같 것만 못하나 그의 識鑑은 近代에 第一이라서, 澤堂의 子弟로 더불어 말할 때마다 許筠이 詩를 안다고 했다.”<下·106>

위에서 慧性이나 定力은 글자 그대로 해석해도 無妙하겠으나 위 낙 佛敎에 心醉한 西浦와 象數의 ‘禪定 智慧’하는 데서 採用한 듯하니 慧性의 用例를 하나 더 찾아 보면 西浦가 花潭과 張谿谷을 評할 때 錫谷에게 慧性이 있다고 하며 禪家의 “本地風光, 本來面目之說”을 가장 적절한 比喻라고 하고 있다.

“禪家에 ‘本地風光, 本來面目’이란 말이 있는데 이 비유가 가장 적절하다. 이 채 櫄括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 圖經을 널리 모으고 깊밀한 고증을 거쳐 손을 밟대고 內外의 差異를 얘기함에 역력히 들을 수 있으나 문은 輿仁門에서一步도 나서 본적이 없다면 본것이 習俗의 風光이요 紙上의 面目이라 다만 가히 산을 봇 본 사람과 담론할 수는 있으나 만약 正陽寺 住持僧을 만나면 낭패한다. 만일 어떤 사람이 東海路上으로부터 外山一峯을 바라 보면 전체는 보지 못했다 하드라도 본 것이 진짜 산이 아니라고는 할 수 없으니 徐花潭이 가까운 사람이고, 어떤 한 사람이 도경 위에서 본것과 같으나 그 사람이 본디 慧性을 갖추고 있어 능히 단청과 蹤逕을, 그리고 文字의 脉絡을 알아 陳述에 걸리지 않고 衆說에 혼혹되지 않아 翁翁 생자 이 山中의 景物이 眼中에 있는 듯하면 이는 미륵 斷髮嶺위에서 본 것은 아니고 되 세상에 진짜로 楓岳山을 본 사람이 없다면 또한 미루어 善知識이라고 할 만하니 張谿谷이 이런 문이다.”<下·110>

라고 하였고, 蘭雪軒을 評함에도 이 말을 使用하고 있으니,

“난설현 許氏의 詩는 李蓀谷과 그의 仲氏 荷谷에서 나왔다. 工夫는 玉峯諸公만 못하나 慧性은 지나치니 海東 閨秀는 오직 이 한 사람이다.”<下·115>

라 하고 또 蘭雪軒을 慧女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여 西浦는 自己의 評論에 ‘慧性과 定力’을 이끌어 들이고 있다. 그리고 許筠을 評할 때 體格과 才情을 가지고 나룬 예가 있다.

“筠의 四部稿가 士大夫 사이에 널리퍼졌는데 體格은 그냥 대단히 높진 않으나 才情은 남을 넘어서는 뜻이 있으니 宮闈絕句, 竹西樓賦와 같은 것은 洲岳諸公도不可能이니 許筠으로 하여금, 晉, 宋間に 둔다던 范蔚宗·殷仲父의 유는 되었을 것이다.”<下·107>

에서는 慧性과 才情을 代入시켜 불만하다. 이어 妓女 黃眞詩와 緇流의 詩를 評하는데도 불교의 理論을 빌고 있으니 例하면,

“妓女 黃眞의 詩가 靑丘風雅의 遷入되었으나 자못 塗鈿한대 부녀의 詩이기에 사
람들이 或傳誦한다. 東方緇流의 詩 또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일찌기 僧休靜集
속에 그의 무리와 說法한 文字를 봤으나 다만 大慧, 高峯의 陳談이라 東西로 塗抹
하여 人眼을 가리니 참으로 이운마 依樣하여 菊蘆를 그리는 것이 이와 같으나 善
知識이라고 말한다면 그 누가 놓하지 못하리요. 亦 海東山海의 氣가 元數가 많
지 않으니, 비록 外方之士도 이에 지나지 못하니 釋註의 高峯의 神要와 大慧의 書
狀은 이쪽에 心經附註와 朱書節要가 있는 거와 같다.”<下·116>

에서는 詩가 依樣이나 되어 고방을 벗어나자 못함을 예리하게 짚고 있는
것이다. 다음은 詩의 質量 問題로 評을 加한다.

“元白의 巨秩을 세상에서 廣大教化主라고 하면서도 築論者가 끝내 王孟韓柳의 위
에 놓지 않음은 어찌 材具는 비록 크나 韻調가 近俗함이 아니겠는가? 今人이 詩를
論評함에 대뜸, 築什이 富盛하고, 酣應에 閃색하지 않음을 귀하게 여기므로, 車天
輶, 柳夢寅之徒가 雄이란 소리를 들고 崔·白의 寂寥한 築數가 때로 사람에게 가
려이 보이니 詩道가 본래 이 같다며, 한 줄 구술로 대를 불린다고 할 때는 진실로
高廩의 陳粟이 더 나오나 만약에 波斯會集을 지난다면 구술 한 줄 친 사람은 宋席
에 참예할 수 있으나 廩粟의 어찌 通名이나 하겠는가?”<下·127>

라고 하여 質이 문제지 量이 문제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 밖에 評家를 評한
例를 하나 들어 보면,

“自古로 評詩者라고 만드시 詩에 能하단 法은 없고 能詩者로 또한 언제나 善評
만 할 수는 없는 것이다. 嶺滄浪詩評에 詩는 十三篇인데 絶句가 겨우 晚唐風味가
있을 뿐, 劉須溪도 詩를 뒤에 남겼다는 소리 못들었다. 李芝峯이 詞贊의 重望을
지고서 類說二十卷을 지었는데 論詩가 반을 차지하지만 그 말이 人意를 開發한 곳
이 별로 없으나, 柳西厓는 經世의 文으로 어찌 일찌기 小技에 빠졌을까마는 그가
李白의 洞庭湖, 劉禹錫의 大提詩를 論評함에 見識의 超卓함은 類說에서 구해도 염
지 못할 것이다. 洞庭은 실로 사람들이 모두 좋아하나 大提 같은 것은 실로 公의
獨見이라 또한 才智가 出人함을 알 수 있으며 象村詩話가 薩天錫, 罷宗吉의 繼覆
한 말을 많이 取했으나 公의 詩는 이 길을 따라 言을 있다고 생각한다.<下·118>

다음 氣論에 對解 살필 차해다. <下·77>에는 孟子의 浩然之氣는 朱子語

類五十二卷을 읽고 論하고 있으며 <下·83>에 ‘清蒙之氣’ <下·129>니, ‘傲倪飛揭之氣’니, ‘蹈厲之氣’니, ‘飛揚輕銳之氣’니 하는 것이 그 예이고 가장 詩文評에 밀착된 用例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으니,

“가만히 달하기를 예로부터 文章大家가 고작 四人이 있으니, 司馬遷, 韓愈之文과 屈平之賦와 杜甫之詩가 이것이다. 이런 것은 모두 ‘四時之氣’를 갖추고 있어서서 그렇지, 不然이면 족히 大家라고 할 수 없겠다. 史記의 酷吏·平準, 昌黎의 誌銘, 楚辭의 九章·天問, 子美의 蓼後의作品은 모두 秋冬의 霜雪을 나타내고 있으나 아름답지 못하다고 하면 진실로 不可하지만 도리어 范蔡荆話 五原序 書離騷九歌 出塞更別 入蜀諸詩보다 낫다고 하면 나는 길지 않겠노라”<下·139>

의의 ‘四時之氣’ 論評으로 볼 때 여러가지 속성 곧 花피고 새우는 따뜻한 온화하고 부드러운 물의 기운, 싱싱하고 푸르른 여름의 기상, 그리고 秋冬의 霜雪과 같은 기상 등을 두루 갖춘 문학을 좋아한다고 풀이해 볼지하다.

이 밖에도 用事에 對한 論評이나 字眼에 관한 문제 등 할 얘기가 많으나 여기서 줄이고 다음은 中國側評으로 넘어 가기로 한다.

(3) 中國側評

중국에 관한 評은 大端히 많지만 두가지만 引例하기로 한다. 李, 杜比較評이다.

“李杜는 濟名이나 唐以來 文人們이 左右袒로 치는데는 杜甫가 十中·七八이니 白樂天, 元微之, 王介甫, 및 江西一派는 함께 社를 높이고, 欧陽永叔, 朱晦庵, 楊用脩는 李를 더 높이고, 韓退之, 蘇子瞻은 杜를 함께 높인다. 만약 明의 弘嘉諸公들 같으면 실로 모두를 높이는데 그 意旨를 보면 少陵에 치우친 뿐이다. 詩道가 小陵에 와서 大成되므로 古今의 大家로 추대함에 異論이 없음은 李白이 함께하지 못하지만 物이 極盛하면 문득 쇠하므로 邵子 말하기를 花을 보려거든 모름지기 피지않을 채를 봐야 한다고 했으니 李白은 花이 이제 막 편 상태로 札詩는 다 편 상태이고 蕤州 以後는 意思를 펼치 드려 내었다고 하겠다.”<下·96>

위에서 볼 때 西浦는 李白 쪽이라고 판단 지울 수가 있으리라. 이어 八家文評에 對한 것을 살펴 보면,

“朱文公이 일찌기 唐宋六家文을 選集하려다가 결실을 못 보았더니 明의 茅鹿門氏가 少蘇와 荆公을 더하여 八大家文抄를 만들었는데 談藝家들이 모두 允許했으나 오로지 摹評에서 四家를 빠뜨린 사실을 恨스럽게 여겼다. 내가 이로기를 이 八家

들은 '英·惠의 清和'와 '玉·燕의 肥瘦'를 同工異曲으로 聖域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어 取捨하기 쉽지 않지만 나의 固陋함을 해아리지 않고 八家文評을 문득 만 들어서 싸 前人의 缺點을 짚는다." <下·94>

라고 하여 '伯夷의 聖之清'과 '柳下惠의 聖之和'와, '玉環의 肥'와, '趙飛燕의 瘦'가 同工異曲인 것처럼 모두 聖域에 들었다고 하고 閨陋를 무릅쓰고 敢評을 한다고 하여, 항복을 달리해서 八大家의 文章을 評하고 있다.

"韓昌黎는 武王이 山立하매, 尚父가 扇揚하고 百神이 受職하여 萬靈이 바람에 솟리는 것 같으며, 또한 憲龍이 千天帝에 陵谷에 빠져 日月이 엎어지는 것 같으며, 柳柳州는 巫峽가을 물결을 기습하여 蒼梧山의 幕境을 跳望하여, 渲綿·幽峭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마음이 懈摩한 것 같으며, 또한 銀女가 구슬같은 눈물을 흘리며 夜光珠 아님이 없는 것 같으며, 欧陽公은 公西華亦이 禮賓을 돋고 季子가 樂을 觀賞하며 聲容이 다를다움을 燥然히 逆複할 수 있는 듯하고, 또한, 幽間塞淵한 女人이 爽조지 웃음짓고 눈찌를 글리는 듯하고, 蘭文安은 離鶯距躍하는 茂士가 乾鳴風雲의 隊을 헤치고 그가 대 그聲이 乎明자서 皇芝가 진동하듯, 또는, 天馬가 東來하여 洗空蕪野하는 듯하고, 東坡는 秋湖가 生吞여 百川이 거구로 흐르는 듯, 擶風이 불어 萬葉가 怒號하는 듯하고, 또는, 雜陰候가 趙나라 二十萬衆을 제도리는 듯하며 頴濱은 晴江에 바람이 자매 千里가 一色인데 蘭舟에 解纜하여 맨는 대로 遊矣하여 또는 溫伯孺子가 目擊而道存하듯하고, 曾南瓜은 鄉飲하는 謩席에 鹿鳴金 노래하고 南陵齒을 演奏한 제 周旋推遙寄이 與興如也한것 같고 또는 明德衣練에 夷者心折하는 듯하고 王別公은 養叔列賦에 欧冶鏽劍하니 至極히 鋒猛함이 金石분지지 않음이 없는것 같고 또한 雅이 諸客을 薄然함에 沙土가 陶盡하는 듯하다." <下·95>

위의 評論態度와 才致를 보니 가까이는 沈斐가 破閑集에서 評한 田馳 審사하니, 곧 "譬如驚蹄臨燕越千里之途, 鞭策雖勤, 不可以致遠…… 手作敲推直犯京尹吟成太瘦, 行過飯山, 意盡西峯, 鐙撞半夜⁸⁾와 같으며 또 西浦外 同時代의 息菴 金錫胄의 評과 彷彿하다 하겠으니 例하면

"息菴金相公錫胄, 曾取東方詩人, 自羅麗至我朝, 各有品題, 其評曰, 文昌僕恨致遠, 千仞絕壁, 萬里洪濤 樂浪侯金富就, 虎嘯陰谷, 龍藏暗壑, 知制誥鄭知常, 百技流蘇, 千絲鐵韻, 變明齊李仁老, 雲屏曉雨, 水鏡涵天, 白雲后主李奎報, 金碧勞天, 神龍舞海……就其詩家, 大小體格, 各有奇警可無不適當故用錄于編尾⁹⁾

8) 抽稿 李仁老 評論 研究.

9) 在環斗 玄湖頃談에서

와 닮았으며 멀리는 唐司空圖의 二十匹詩品의 그것과 닮았다고 할 수 있다. 보통의 博識과 美的範疇의 廣大가 아니고는 不可能하다고 하겠다. 이점도 西浦評論의 偉大性을 立證한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敘上으로 韓國 및 中國側에 對한 漢詩文評을 마치고 西浦의 한글文學에 관한 評을 살피기로 한다.

2) 한글 文學評

여기 이 한글文學에 對한 評論이야말로 西浦의 偉大性을 드높여 주는 所以라 할 수 있으니 韓岩·退溪, 放翁等의 한글文學評을 이어 西浦는 정말로 우리 국어의 아름다움을 發見 強調하여 우리 文學評論史上에 不滅의 공적을 남기게 되었으니, 後人으로서 웃깃을 여미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高麗風謡에 對해서는 머리말에서 다루었으니 여기서는 먼저 白沙李公福의 鐵嶺宿雲詞에 對해 살필까 한다.

“白沙李公이 北青으로 流竄될 때에 鐵嶺을 넘여 가면서 鐵嶺宿雲詞를 지었는데 歌詞 속에 孤臣冤淚로 지나가는 비를 만들어 九重宮闈 속에 뿌려 보겠다는 말이 있는데 어느날 光海主가 後庭에서 游宴을 베풀었드. 宮娥 하나가 이 詞를 노래하거나, 王가 가로되 「이거 新聲으로 大端한 것이군. 어디서 열어 들었느냐?」 하기의 답하기를 「都下에 傳唱 되었는데 李某의 所作이라 합디다」하니, 光海主가 다시 부르라고 하곤 懶然히 눈물을 흘리니 詞가 사람을 感動 시킴이 이 같으니, 만약에 光海 같은 者라 할지라도 어찌 함께 착한 일을 할 수 없으리요? 雖錦南이 李公을 따라 가서 公의 講所에서의 일을 기록한 것이 매우 상세하니 此老의 淮海氣象을 後人들이 오히려 想見할 수 있구나, 전해 들으니 公의 子孫들이 그 詞가 지나치게 繁放하여 儒者의 氣象을 끌지 않음을 협의롭게 여겨 많이 刪改했다고 하니 단식할 노릇이다. 子贊이 표주복을 지고 길 가면서 노래했다고 하여 伊川이 舟中에 危坐할 만 듯하다고 하지만, 徒矯體로 하여금 따르게 하여 옮겨 나아가게 한다면 伊川은 당하지 못할 것이니, 어찌 伊川인들 친수가 없겠는가?”<下·142>

위의 鐵嶺宿雲詞는 바로 白沙의

鐵嶺 높은 채에 자고 가는 저구름아 孤臣冤淚를 비침아 떠어다가 임제신 九重深處에 뿌려본물어띠리

하는 時調이다. 光海 같은 暗主를 감동시킬 수 있었으니 진실한 감이 넘쳐 호르고 있다. 그러나 자손들이 儒者의 氣象과 거리가 멀다고 하여 刪改했다

는 말을 듣고는 탄식을 금하지 못하는 西浦였던 것이다. 이어서 볼 때 西浦는 응출한 废儒와는 그軌를 칼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는 松江의 作品에 對한 論評을 들어 보자. 이어서는 大方 諸家의 뜻은 言及이 있으므로 원문을 옮기는 것으로 그치고 다만 西浦의 文學論譯에 對한 見解와 詩歌觀, 國語에 對한 깊은 理解와 卓見 및 民衆意識이 역력 드러남을 밝힐 으로 그만두겠다.

“松江의 關東別曲과 前後思美人歌는 我東의 離騷이다. 그러나 그것을 文字—漢字：筆者註一로 기록 할 수 없어 오직 樂人들이 입으로만 주고 받으며 혹은 國書—한글—토씨 전할 따름이다. 어떤 이가 七言詩로 關東曲을 번역했으나 아름다울수가 없었다. 어떤 자가 이것을 懿堂 어릴 때 지었다고 하니 틀린 말이다. 鳩摩羅什이 말하기를 天竺의 風俗이 가장 文—文飾：筆者註一—을 중상하여 讀佛之詞가 極히 華美하다. 이제 泰語로 옮기면 다만 그 의미는 알 수 있으나 그辭의 韻미는 알 수 없다고 했으나 理致가 실로 그렇다. 사람의 마음이 입으로 나오는 것이 韵이 되고 言에 節奏가 있는 것을 歌詩文賦라고 한다. 四方의 글이 비록 다르나, 진실로 能言者가 있어 각각 그 言을 인연해서 節奏하면 모두 ‘動天地通魂神’ 하기의 緒하나 中華만이 그런 것이 아니다. 이제 我國의 詩文을 쓴데 우리 말을 바리고 他國의 말을 배워서 쓴다면 設令十分 서로 비슷하다 해도 이것은 鹽鴉¹⁰의 사촌의 말 흉내 내는 것일 따름이다. 만약에 閨巷間의 樹童汲婦들이 소곤거리며 서로 화답하는 것을 비록 邃僻하다고 해도 그 貞潔을 논한다면 실로 學士大夫의 所謂 詩賦라는 것하고 同日이 論한 바가 끗된다. 하물며 이 三別曲은 天機의 自發함이 있고 衷俗의 邃陋함이 없으니 自古로 左海의 資文章은 다못 이 三篇이지만, 또한 三篇만 가지고 論한다면 後美人曲이 더욱 높은 값어치가 있으니 그 이유인즉 관동, 前美人은 文字語—漢字—를 빌어서 그 色깔을 꾸몄기 때문이다”<下·159>

실로 評論文學의 大文字요, 卓越한 評論家¹⁰ 아니라 할 수 없다.

3) 小說評

小說에는 두 가지의 概念으로 간라서 살펴야 하겠다. 왜 그려냐 하면 西浦는 小說이란 말을 두 가지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하나는

“宋人 小說에 元祐黨인이 蘇子瞻을 儬州로, 子由는 雷州로 魯直을 宣州로 攪逐 시켰는데 ‘儼·雷·宣’이란 字가 ‘瞻·由·直’의 字와 字體가 서로 비슷하기 때문이라 하니 대개 章子原의 駿語이다……대개 好事者들의 附會하는 말이니 小說을 일

10) 丁奎福：西浦集解題，景仁文化社刊。

을 수 없음이 이 같다 <下·133>

이에서는 歷史的 事實과 다르게 날조된 얘기는 믿지 못하겠다고 하였다. 위의 小說도 亦是 街談巷語, 塗聽塗說等인데, 굳이 이런 事例에서도 공티적 효과를 노린다면 노릴 수도 있는데 西浦가 이렇게 배척하고 있으니, 후술할 ‘通俗小說之所以作’이란 관점과 상치되는 見解라고 볼 수 있다. 대개 西浦가 이렇게 모순되는 견해를 보임은 小說發達過程을 두고서 마침 때 우연히 fiction화 되고 構成上의 技術的 程度를 두고서 그렇지 했다고 볼수 있겠다. 다음은 通俗小說에 대한 見解를 引用한다.

“李義山의 哀師詩에 「或笑張飛鬍, 或效鄧艾」이라 했으나, 益德의 鬃가 陳壽의 三國誌에는 보이지 않더니 裴氏의 歷代君臣圖象註에도 益德이 보이지 않으니, 義山時代에 혹 史傳外에 증거할 만한 책이 있었는지 알지 못하겠다. 지금 소위 三國志衍義란 것은 元人 羅貫中에서 나왔는데 壬辰年 뒤에 我東에 성행해서 婦孺도 모두 誦說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 나라 士子들이 歷史를 읽기 싫어하는 때문에 建安 이후 수·百年의 일을 이 소설에서 取하여 밀고 있다…… 李彝中이 大提學이 되어서 일찍이 「風雪訪草廬」二十一韻排律을 내어 湖堂의 여러 學士를 시험했다. 내가 말하기를 公께서는 衍義로써 出題하느냐 하나 대체학이 웃으면서 先生의 三顧가 실로 冬中이니 風雪를 무릅쓰단 말이 가히 알만하지 않소?라고 했다.<下·152>

위에서는 史實과 衍義를 혼동하지 말 것을 강조했고 다음은 通俗小說의 價值에 對해 言及하고 있다.

“東坡志林에 밀하기를 塗巷中의 小兒들이 薄劣하여 가정에서 肆苦의 對象이라서 돈을 주고 여럿이 도여 앉아 古話を 듣는데 三國事에 이르러서 유현덕이 폐했다는 얘기 듣고는 빠죽거리며 눈물을 흘리고 宦操가 收했다고 하면 좋아서 快哉를 부르니 그자 羅氏의 權輿인가? 이제 陳壽의 史傳과 濬公의 通鑑으로써 여러사람을 도아 놓고 강설해도 사람들은 반드시 모두는 눈물을 흘리지 않을 것이니, 이 것이 通俗小說을 짓는 까닭이다.”<下·153>

두말 할 것 없이 卓見이다.

4) 評 語

西浦集과 漫筆에 사용된 評語를 모두 모아 보면,

“質古，盛麗，璀璨，佳麗，光艷，萎弱，恬嬉，簡約，淺近，不屑，高爽，浮薄，伉直，甚婉，委曲，峻截，婉曲，懸達，窈窕，佳冶，宛轉，委曲，清蒙，明切，襯切，綺工，精切，含蓄，清和，肥瘦，豪壯，瀾濶，鄙野，粹然，冗陳，拗拙，尤密，空疎，鄙俗，恆拗，清峻，古雅，廣大，纏密，蹈厲，懇惻，優游，纖麗，典雅，清遠，幽審，精深，偉麗，跌蕩，寂寥，深婉，精切，鄭重，煩絮，豪放，精鍊，穩活，精緻，峻壯，奇跋，精麗，蕭索，悲壯，飛揚，輕銳，鄙薄，敏速，精確，華美，鄙俚，清幽，凡鄙，渺綿，幽峭，醇深，典重，沈靜……”

위에 摘示한 約八十餘個의 評語에서 보면 李朝 初期 儒學者들에께서 간혹 보이는 冲談이니 散蕭이니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다. 穀陵代에 오면 退栗을 頂點으로 하여 枯淡, 冲淡, 蕭散, 閑遠 等이 보이는데 西浦에게서는 보이지 않고 文學 一般을 말해주는 그런 評語들이라 할 수 있다. 評語의 數로 볼 때는 광장히 많은 편에 속하여 西浦漫筆에서는 理論의 展開보다는 실제作品評이 더 우위임을 보여 준다고 하겠다.

5. 痘弊論

西浦 當時 文人們에게 어떤 폐단이 있었느냐 하는 것을 보기로 한다.

“孟子가 公孫丑에게 말하기를 “자비는 찬으로 施人이토군, 管仲, 晏子만 알따름이구나”라 했는데 我東, 文人们이 모두 이 痘에 걸렸다. 往往 東方의 詩를 가지고 宋明에 비기는데 이것은 마치 사람이 산을 보는데 작은 山이 가까이 있고 높은 산이 멀리 있으면 小山을 가지고 높다고 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으니 이는 다름 아니라, 사람의 키가 작기 때문이다. 만약 사람으로 하여금 높이를 山과 같이 해 준다면 그렇지 않을 것이다. 무릇 東方 前輩의 詩를 中華에 비기는 것은 그 사람의見識이 또한 그 사람의 아래 있기 때문이다. 李朝 詩의力量이 前朝반 못하기에 이제 前朝의 最高로 傑然하다는 사람을 宋明 大家에게 비교하면, 이는 정히 南越王趙佗가 推曆箕踞하여 漢帝로 雄을 다투려는 것과 같고 山東의 富戶가 스스로 銀叙와 龍虎으로 만족하여 金谷의 富貴를 모르는 것이니 하물며 徐子일까보냐”<下·99>

참으로 锐利한 評이다. 科舉場屋之文은 枚風할 수 없을 정도로 그 폐단을 지적했다. 다음은 末流의 폐단을 言及할 순서다. 앞에서 언급이 되었으나 여기서 항목을 달리하여 取扱한다.

“末流의 痘弊가 全혀 古學을 폐한데 있어 空疎, 鄙俗하니 前三季와 비교하였다. 도 더욱 심하니 唐宋의 遺風과 餘響이 이에 이르러 掃地 되어 詩道의 百六之窮이

이 뼈보다 더甚한 때가 없다. 學明一派는 月汀·玄軒·諸公과서 懾觴하는데 近代 李子時가 成家한 사설라이고 하나 대개 東詩의서 脍肉나온 걸가지다.” <下·100>

詩道가 百六之窮에 봉착했다면 보통의 표현이 아니다. 古人の ‘立志須高’ 가 절실히다. 詩의 源流를 의연한 當然한 所致로 볼 것이다.

6. 맷음 말

先輩 교수님들의 業績을 바탕으로 이제 어설픈 展開를 要約해 본다.

西浦는 言語·文字에 對한 관심이 大端하고, 우리의 文化에 佛教가 끼친 영향을 箕子보다 더 높이 사며 宗教의 道·儒·佛·道·耶蘇教에까지 관심했고 佛教의 要諦는 ‘眞空妙有’ 四字의 不外한 그 동·여 많이 경도되었고 西洋地圖說에 共鳴한다. 詩는 兄 瑞石 萬基에게서 朱子의 詩의 門路를 이어 받아 學古와 質을 주로 할 것을 강조했고 詩論도 따라서 朱子의 詩論에 힘입은 듯하다.

評에는 我國과 中國側의 詩文을 다같이 다루었고 특히 八家文評은 우수하며 그 外에도 詩體變遷史, ‘詩人所尚各不同’이니, 詩體에 따라 各 詩人마다 特長이 다름을 인정하고 특히 佛教의 理論을 評論에 累累히 引用함은 他의 評論家에게서 보지 못하는 우리 文學評論史에서 꽂목할 위치를 차지하는 것이니 ‘慧性과 定力’, ‘禪家の 本地風光’ ‘本來面目’等 이루 다 열거할 수 없다. 그 外에도 詩의 質量 問題, 體格과 才情 問題, 材具와 聲韻 問題, 用事와 字眼, 氣象 問題, 이 中에도 ‘匹時之氣’를 갖춘 文學이 華麗하다는 評論, 依樣은 禁物이라는 등 漢詩文에 관한 것과 더욱 한글 文學에 對한 評論은當時로선 形言하기 힘든 그런 卓見이다.

鐵嶺宿雲詞에서는 옹졸한 儒者의 氣象을 배척했고 通俗小說의 文學性을 강조했으나 史實과 혼동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끝으로 西浦는 當時의 痘弊를 認見이 알고 立志가 높지 못함을 개탄하고 百六之窮에 몰린 詩道를 挽回하기 위하여 宋詩抄도 만들었고 唐詩에의 反正을 서서히 조작하려 했다 할 수 있다.

※ 通文館：發行(1971. 6.20) 西浦集, 西浦漫筆을 대본으로 했음.